

 금융감독원		보도자료		금융은  하게 소비자는  하게	
보도	2023.9.6.(수) 석간	배포	2023.9.5.(화)		
담당부서	IT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팀 장	이 수 인	(02-3145-7425)
		담당자	선 임	이 윤 기	(02-3145-7427)
2023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					

I.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평가

- 2023년 상반기 중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
 -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·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, DDoS*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

* DDoS(Distributed Denial of Service, 분산서비스거부 공격) : 여러 대의 PC가 동시에 특정 시스템을 공격하여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는 공격

반기별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

구 분	'22년 상반기	'22년 하반기(a)	'23년 상반기(b)	증감(b-a)
장애사고	197	216	194	△22
침해사고	4	3	3	-
합 계	201	219	197	△22

-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10.0%가 감소(22건↓)하였으며, 전산센터 화재·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음
 - 그러나,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·지연되거나,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, 보험료 출금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의 사례가 발생
- 다양한 유형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향후 타 금융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다수 있어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

II. 주요 전자금융사고 사례

1 DDoS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영향

- 일부 DNS* 업체가 DDoS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

* DNS(Domain Name System) : 사람이 기억하는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 주소(IP)로 변환해주는 시스템 (예시 : www.fss.or.kr → 61.73.100.30)

- 또한,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중소 금융회사가 DDoS 공격을 받아 간헐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된 사례도 발생

※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, 그간 구축한 방어체계(보안 장비 및 관제, 금융보안원 DDoS 대피소 운영 등)로 장시간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는 없었음

주요 사례

- ◇ (다수 카드사) 결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DDoS 일제 공격(최대 14Gbps, 약 1분간 집중)이 발생하였으나, 금융보안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피해는 없었음
- ◇ (A저축은행 등)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DNS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이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IP주소를 획득하지 못하여 인터넷·스마트뱅킹 등 사용 불가

2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중복거래 발생 등

-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설계·구현·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
- 주식매매 정산 오류, 환율·금리 산출 오류, 보험료 할인 미적용 등의 금전사고 및 고객정보 관리 오류 등의 사고 발생

주요 사례

- ◇ (B증권사)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이미 매도된 주식이 계좌에 남은 것으로 잘못 표시되면서 고객 착오로 중복 거래(주식 추가매도) 등이 발생
- ◇ (C보험사)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보험료 관련 설정을 누락하여 보험료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채 과다 청구
- ◇ (D은행) 환율 고시 관련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현재 시점의 환율이 아닌 전일자 최종 환율로 환전 처리가 됨
- ◇ (E증권사)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CI(Connecting Information)의 관리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고객의 정보 중복 발생

3 하드웨어 결함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지연·중단

- 하드웨어(서버, 통신장비, 저장장치 등)의 노후화 등으로 이상 동작이 발생하여 서비스가 지연·중단되는 사고 다수 발생
 - 이상 동작시 이중화 예비 장비로의 전환도 실패함에 따라 자금 이체 및 해외주식 주문 장애 등의 사고 발생

주요 사례

- ◇ (F증권사) 보안장비(방화벽)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고객의 거래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체 및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 등의 지연 발생
- ◇ (G은행) 서버·통신장비 등을 다중화하여 장애상황에 대비하였으나, 통신장비에서 유량제어 신호 처리 중 이상동작이 발생하였고 백업장비로 전환도 원활치 않아 대외계 서비스 장애 발생

4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영향

-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서비스(본인인증, 카드결제 대행 등)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
 - 비대면 계좌개설 등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보험료 등의 카드 정기 자동결제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고 발생

주요 사례

- ◇ (H은행 등) 휴대폰 본인인증 대행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은행·저축은행 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의 거래 불가
- ◇ (I보험사) 보험료 결제 요청시 VAN사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하여 정상 결제건을 카드사에 재요청함에 따라 보험료가 중복 결제

5 인적 요인에 의한 장애

-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통제 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작업자 실수로 인한 서비스 지연·중단 사고 발생
 -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거나,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정 오류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발생

주요 사례

- ◇ (J은행)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에 배포시 일부 소스코드 등을 누락하거나 DB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배포하여 대출·오픈뱅킹 업무 중단
- ◇ (K카드사)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가 운영환경에 이관됨에 따라 모바일 앱 접속 장애 발생
- ◇ (L전금업자) 보안장비의 탐지 규칙을 정비하면서 정상적인 통신을 차단토록 잘못 설정함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고지서 열람 불가

6 기타

- 전산시스템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거래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

주요 사례

- ◇ (M은행 등) 거래번호 채번시 거래량 증가로 인하여 최대값(예 : 7자리 숫자)을 초과하여 오픈뱅킹 이체거래가 중단되거나 기업뱅킹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

Ⅲ. 전자금융사고 예방 활동 및 향후계획

- '23.9.6. 금융감독원은 총 26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'23.3분기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,
 - 금융회사가 기존 사고 사례 및 발생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, CIO 및 CISO 등 경영진이 주도하여 IT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
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동일·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,
 -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
- 또한,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임